

이슈브리프 905호
(2026. 9.29)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평가와 함의

제905호

양갑용 jiayong@inss.re.kr



국문초록

중국은 11년 만의 시진핑 주석 미국 국민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항 영접 등 최고 수준의 의전을 '역사적 방문'으로 평가하며, 이를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시진핑 대국외교의 성과로 적극 부각하고 있다. 동시에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의 재확인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관계의 핵심은 협력을 확대하되 경쟁은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이견은 통제 가능한 범위에 두면서 전략적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미·중 간 구조적 경쟁을 해소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무역, AI, 군사위기 소통, 인문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통 채널과 공통 인식을 확대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대만 문제는 해결보다는 레드라인을 재확인하고 관리하는 사안, AI는 경쟁을 지속하면서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완충지대로 인식하고 있다.

국내정치적으로는 미국의 최고 수준 의전과 중국의 '강대국' 위상이 시진핑의 외교 성과와 지도력 강화의 서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중 관계 안정이 중국의 경제 발전과 국내 정책 추진에 유리한 외부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정치에도 긍정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대만·AI·기술 경쟁 등 구조적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회담의 핵심 의미는 경쟁의 종식이 아니라 '경쟁은 지속하되 충돌은 관리하는' 새로운 미·중 관계 운영 방식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데 있으며, 향후 관건은 정상 간 합의가 실제 제도와 행동으로 지속적으로 이행되는가에 있다.

키워드: 정상회담, 전략 안정 관계, 대만, AI, 시진핑, 국내정치

시진핑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은 11년 만에 이루어졌다.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정된 네 차례 미중 정상회담 가운데 두 번째 회담이라는 점에서 일정에 쫓기지 않는 여유로운 분위기가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에서 직접 시진핑 주석을 영접하는 등 미국 측의 파격적인 의전이 주목받았다. 중국은 이를 ‘역사적 방문’으로 평가했다. 양 정상은 5월 베이징 회담 이후 만년 만에 상호 방문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APEC과 G20을 계기로 두 차례 더 만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공동성명이나 공동 기자회견 없이 종료되었지만, 양국은 모두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상당 부분 공통 인식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팩트시트를, 중국은 <신화사>를 통해 양 정상의 ‘8항 합의’를 발표했다. 중국 내부의 평가를 종합하면 이번 회담은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첫째, ‘역사적 방문’과 미국의 최고 수준 의전이다. 중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항 영접, 백악관 환영식, 정상 간 차담회와 환영 만찬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이를 단순한 의전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하나의 강대국이자 대등한 협상 상대로 대우했다는 상징으로 해석했다. <신화사>는 이번 방문을 ‘여섯 장면’으로 구성해 주요 의전 장면을 부각했고, 만년 만에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진 점을 ‘전례 없는’ 역사적 사건으로 강조했다.

둘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의 재확인이다. 이는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새로운 미·중 관계의 방향으로, 이번 워싱턴 회담에서 다시 확인되면서 중국은 이를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향후 양국 관계를 규정하는 전략적 틀로 제시하고 있다. 핵심은 ▲협력을 위주로 하고(合作爲主), ▲경쟁은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며(競爭有度), ▲이견은 통제 가능하게 유지하고(分歧可控), ▲평화를 기대할 수 있는(和平可期)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셋째, 관계 안정의 실질적 기반이 확대되었다는 평가다. 정상회담에 앞서 제8차 미·중 경제·무역 협의가 개최되었고, 무역 휴전 기간도 연장되었다. 이와 함께 경제·무역, 관세, AI 대화 및 AI 안전 소통 채널, 마약 단속, 군사적 위기 소통, APEC·G20 협력, 인문·청년 교류, 판다 외교 등이 향후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이번 회담을 정상 간 친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기반을 축적한 회담으로 설명하고 있다.

넷째, 미·중 경쟁 자체를 없애기보다 경쟁이 충돌로 전환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정치체제와 역사, 경제적 이해, 전략적 목표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전략적 경쟁을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 대신 경쟁의 목적과 수단, 범위에 일정한 경계를 설정하고 ‘경계가 있는 경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1. 정부의 평가 : ‘새로운 관계 운영 틀’에 초점

중국 정부의 공식 평가는 상무부와 외교부의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무부 : AI를 경제·무역 의제로 격상

상무부는 제8차 미·중 경제·무역 협의에서 양측이 처음으로 AI를 공식 의제로 논의하고 공통 인식에 도달한 점을 주요 성과로 강조했다. 기존 AI 논의가 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경제·무역 협의 체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은 이를 통해 AI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무역 규칙, 시장 접근, 산업망 안전 등과 연결된 종합적 문제로 발전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AI를 경제·무역 의제로 다루었다고 해서 미·중 간 AI·반도체 경쟁의 구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 핵심 목적은 경쟁 자체를 종식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 갈등이 급속히 고조되는 것을 막고, 경쟁 속에 일정한 완충지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장기적으로는 AI 제품과 스마트 하드웨어의 공급, 시장 접근, 가격 및 규범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글로벌 AI 거버넌스와 산업 규칙 형성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 : ‘8항 합의’와 ‘네 가지 성과’

중국 외교부는 <신화사>를 통해 정상회담의 ‘8항 합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전략관계, 다자외교, 국제 문제, 역사, 경제·무역, 마약, AI, 인문사회 교류 등에 관한 양 정상의 공통 인식이 담겼다. 약속 구속력을 가진 공동성명은 아니지만, 미·중 관계와 글로벌 문제에서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특히 첫 번째 항목으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제시한 것은 5월 회담에서 제시된 비전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려는 중국의 기대를 반영한다. 국제 문제에서는 이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역사 문제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양국의 공동 승전국이라는 점 등이 포함되었으며, 마약 문제와 AI, 판다 및 청년 교류, 군사위기 소통 등에서도 상호 조치가 포함됐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번 회담의 성과를 ▲미·중 관계의 새로운 지평 확장, ▲미·중 협력의 새로운 지평 개척, ▲미·중 우호의 새로운 다리 구축, ▲대국의 책임을 보여주는 새로운 자세 등 네 가지로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회담이 공동성명 하나로 성과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공통 인식’과 협력 메커니즘으로 분산해 제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외교부의 평가는 이번 회담을

특정 현안을 일괄 타결한 ‘정치적 타결’보다는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 메커니즘을 축적한 회담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언론의 평가 : ‘강대국 중국’의 상징성 강조

중국 관영 언론은 정부 발표보다 한층 적극적으로 미국 측의 파격적인 의전과 정상회담의 역사성을 강조했다. <중국신문망>은 반년 이내 정상 상호 방문, 미국의 최고 수준 환영, 정상 간 공통 인식,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재확인 등을 묶어 이번 방문을 이례적 사건으로 평가했다. <신화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공항 영접을 역사적 장면으로 부각하고, 정상회담을 ‘역사적·이정표적 사건’으로 의미화했다.

이러한 보도는 정상회담의 구체적 사실 전달을 넘어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으로서 대우하고 있다는 국가적 위상과 체제 자신감의 서사를 국내에 확산하는 효과를 갖는다. 특히 5월 회담에서 제시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시진핑 주석의 외교적 성과와 연결해 설명하면서 지도자의 대국외교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다만 모든 언론이 동일한 강도(強度)로 성과를 홍보한 것은 아니다. <평파이>는 전략적 안정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측면에 주목했고, 시진핑 주석의 AI 관련 발언을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대만 문제에 관심을 보였으며, <인민일보>는 정상회담 이후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비전에서 행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관영 언론 내부에서도 성과와 상징성을 강조하는 보도와 향후 실행 과제를 강조하는 보도가 병존했다.

3. 전문가 평가 : ‘관계 관리 방식’의 변화

관영 언론이 정상회담의 상징성과 성과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전문가들은 미중 관계의 구조적 한계와 지속 가능한 안정의 조건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

췌시잉(左希迎) 중국인민대학 교수는 중국 경제가 발전 방식 전환과 경제 구조 최적화, 성장 동력 전환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대외 환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푸단대 자오밍하오(趙明昊) 교수 역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양국이 장기간의 갈등을 거친 뒤 관계를 재조정하려는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는 개념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중대한 돌파구를 만들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우신보(吳心伯) 푸단대 교수는 연말까지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관계 발전 가능성을 전망하면서도, 향후 미국 의회 구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쑤샤오후이(蘇曉暉) 중국국제문제연구원 부소장도 경제·무역, 대만, AI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쑤칭하오(孫成昊) 칭화대 교수는 정치 체제와 역사, 경제적 이해, 전략적 목표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적대적 악순환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은 이번 회담이 주요 이견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관계 안정, 지속적인 대화, 분야별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다시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4. 핵심 이슈별 중국의 인식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 경쟁을 전제로 한 안정적 공존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는 이번 회담의 중국 측 ‘8항 합의’에서 첫 번째로 제시될 만큼 핵심적인 개념이다. 중국이 설명하는 핵심은 협력을 확대하고, 경쟁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며, 이견을 통제 가능한 범위에 두고, 전략적 충돌과 오판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 미·중 관계를 협력과 경쟁의 반복적 구조로 보는 데서 나아가 경쟁을 전제로 하되 충돌을 방지하는 안정적 공존의 틀로 관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우신보 교수는 이를 △전략적 상호신뢰, △전략적 공감대, △전략적 상호작용의 세 차원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향후 중요한 것은 정상 간의 화려한 의전이나 선언이 아니라 이러한 비전이 경제·무역, AI, 군사, 인문 교류 등의 제도와 채널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전환되는가에 달려 있다. 결국 ‘비전에서 행동으로’의 전환이 향후 미·중 관계 안정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다.

대만 문제 : ‘해결’보다 ‘관리’

중국 관영 언론은 대만 문제를 미·중 관계의 핵심이자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민일보>는 이를 미·중 관계에서 넘을 수 없는 ‘첫 번째 레드라인’으로 표현하면서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합의 사항의 중심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5월 회담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했고, 중국의 기본 입장을 다시 강조함으로써 미국이 대만 문제의 민감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돌파구를 마련하기보다 미국의 오판을 방지하고 중국의 레드라인을 재확인하는 전략적 관리의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대만 문제에 대해 보다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우신보 교수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와 군사적 결탁, 대만 당국과의 공식 교류 등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전문가들이 대만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 문제가 미·중 관계의 구조적 긴장과 갈등을 드러내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이다.

AI : 전략 경쟁의 새로운 완충지대

이번 회담에서 향후 미·중 관계의 새로운 의제로 가장 주목할 분야는 AI이다. 중국 상무부가 AI를 처음으로 경제·무역 협의의 공식 의제로 다룬 것은 AI를 더 이상 단순한 과학기술 문제가 아니라 기술→산업→무역→시장→공급망→국가 안보로 연결되는 종합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AI 대화의 목적 역시 경쟁 자체를 종식하는 데 있지 않다. 중국은 AI 경쟁이 충돌이나 기술 단절로 발전하지 않도록 완충장치를 만드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양측은 AI 대화를 설치하고 위험과 이점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며 AI 관련 사건에 대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AI의 발전과 관리, 통제를 언급한 것도 중국 내부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AI 위협 예방을 위한 미·중 협력, AI 안보, AI의 국제 공공재적 성격 등에 주목하면서 AI가 새로운 협력 분야가 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동시에 AI는 반도체와 기술 표준, 산업 경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미·중 전략 경쟁의 새로운 쟁점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5. 결론 : 정상회담의 국내정치적 함의와 미·중 관계 전망

정상회담과 중국 국내정치

11년 만의 국빈 방문과 미국의 최고 수준 의전은 중국 내부에서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미국의 대우를 받았다’라는 상징으로 소비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성과를 넘어 시진핑 주석의 대국외교(大國外交) 성과를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관영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항 영접, 최고 수준의 국빈 의전, 백악관 환영식, 정상 간 차담회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것은 시진핑 주석의 외교적 성과와 지도력을 강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미국으로부터 받은 최고 수준의 예우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 상승이라는 서사와 결합하고, 다시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과 대국외교 성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미중 관계 안정이 중국의 경제 발전과 국내 정책 추진에 유리한 외부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안정이 국제적 불확실성을 낮추고 중국이 경제 발전과 ‘15.5’ 계획 추진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향후 시진핑 주석의 집권 연장과 관련된 국내 정치적 분위기 및 정당성을 조성하는 데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전략적 경쟁’에서 ‘관리된 안정’으로

이번 미국의 파격적인 환대가 곧바로 미·중 협력관계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양국 사이에는 대만 문제, 패권과 전략적 영향력, 경제·무역 및 기술 경쟁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 AI가 새로운 전략 경쟁 영역으로 추가되면서 갈등의 범위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5월 베이징, 9월 워싱턴, 11월 선전, 12월 마이애미로 이어지는 잦은 정상외교는 양국이 관계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이 5월부터 ‘전략 경쟁’을 ‘전략 안정’으로 재설정하고 이번 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전략적 불신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문제는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지만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AI 역시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AI는 기술 발전뿐 아니라 표준과 기술 패권, 산업 경쟁 및 글로벌 영향력과 연결되어 있어 향후 미·중 관계의 새로운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국내 정치와 의회 지형의 변화 역시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미·중 간 구조적 경쟁이 해소되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충돌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공통의 인식과 소통 장치를 확인했다는 데 있다. 향후 관건은 정상 간 합의나 공통 인식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경제·무역, AI, 군사, 인문 교류 등의 실제 제도와 행동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행되는가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앞으로의 미·중 관계는 ‘경쟁은 지속하되 충돌은 관리하는’ 새로운 관계 운영 방식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가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